

강의 영상과 함께 교안을 보세요(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youtu.be/mTeIBkV8Tjg>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히2:14-18)

1.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혹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 혹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충동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나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십시오.

질문1) 사탄과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유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벧후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질문2) 그리스도인, 나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증거를 다음 성구를 읽고 말해보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2.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잠겨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의 삶을 ‘정상적인 삶’처럼 받아 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잠시 마음에 안위를 얻는 것이 고작일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나누어보십시오.

3.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은 자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십시오.